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17년 포어 §

다시 거룩한 교회로!  
(롬1:17, 레19:2)

† 행동 지침 †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안식)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조선지서 강해 - 호세아

## 하나님을 잊은 죄

(호세아 8:1 - 14)

원로목사 이종윤



호세아서 8장에는 두 가지 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7절). 인간이 모든 노력을 기울였으나 얻은 것은 멸망을 자초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인간은 노력이 허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잊어버린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마지막에 얻는 것은 멸망 뿐입니다.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흑시 맺을 지라도 이방사람이 삼키리라"(7절). 심기는 심었는데 줄기가 없습니다. 이삭은 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흑시 열매를 맺어도 자기가 먹지 못합니다. 힘을 쏟고 노력을 했으나 거둘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14절).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은 멸망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급한 환경이 닥치거나, 혹은 어려운 결단의 순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다섯 가지 벌을 주십니다.

### 1. 계약파기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 의 집에 댈지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라"(1절).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람의 집에는 위험이 닥칩니다. 그들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자신을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혼자서만 사랑하면 안됩니다(2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를 따르는 선한 일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를 덮쳐서 그들의 삶을 조종합니다(3절).

### 2. 허락받지 않고 행하는 일은 하나님은 모르시는 바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4절).

이스라엘이 세운 왕을 하나님은 모른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모른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며 인간의 마음을 조성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주님께 묻지 않고 한 일은 주님이 모르시는 바입니다.

사울 왕이 패한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도 사울 못지않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그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몰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주님이 아시는 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 묻는 것과 허락을 받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기도는 했지만 허락을 받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행하는 일을 하나님은 모른다고 하십니다. 묻는 것은 통고와 달리 상대방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 3.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는 일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바다

하나님께 묻고 허락을 받아 행한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방법대로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모른다

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보십니다. 성공하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실패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세속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면 무슨 소용입니까? 주님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어떤 일을 이룰 때 하나님은 그것을 모른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도우시고 열납받으실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요, 바람을 심고 광풍을 얻는 사람처럼 결국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 4. 우상을 섬기는 사람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노라고 하지만 누구나 자기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기의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하나님도, 교회도, 직분도 핏개칩니다.

여로보암왕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후로 이스라엘은 253년간 18명의 왕이 모함이나 반란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송아지는 애굽사람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애굽에서 수소는 오시리스 신에게 바쳤고, 암소는 이시스 신에게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미워하셨습니다(5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이웃 나라와 협력하는 것을 아주 미워하셨습니다. 성경은 혼음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혼음은 혼합주의로 다른 신앙을 용납하는 일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마음과 한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 5. 거짓으로 쌓은 제단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11절).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제단을 하나만 쌓으면 됩니다(신12:5). 그런데 그들은 여기저기에 제단을 세웠고 그것 중 대부분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14절).

이스라엘이 지은 이 다섯 가지 죄는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제마음대로 행했으므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님들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아직 쌀쌀한 바람이 불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을 통하여 봄의 기운을 느낍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야 봄이 오듯 우리 서울교회도 곧 따뜻한 봄소식이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몇몇 장로가 교회당을 장악하여 교회 안에서 예배가 없다는 거짓말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문들이 교회 안팎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제발 이런 거짓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회는 종전과 같이 1,2,3부 주일예배와 찬양예배가 있고,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청년1·2부와 사랑부 자체 예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간 예배를 드리지 않은 주일은 한 번도 없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가장 긴급하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나, 숫자를 채우기 위한 호도 행위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제사입니다. 서울교회 성도님들은 부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는 참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번주 주일예배 설교는 이종윤 원로목사님께서 담당하십니다.

계속되는 사순절 기간동안 머리에 재를 쓰는 심정으로 나라와 교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회 당회 올림



순례자 편집부에서 전수인을 대상으로 사순절, 종려주일시, 부활절에 해당하는 동시, 시, 수필, 신앙간증을 공모합니다. 모집 마감은 4월 10일까지이며 순례자 편집부나 yoolulu@hanmail.net로 보내시면 됩니다.

당선자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한국 장로교, 정체성을 말하다 : 교직은 평등, 위계는 인정(2)"

### - 직제, 좋은 교회 만드는 도구 -



최윤배 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 조직신학)

직제 유용론의 입장에서 일반 직제와 특별 직제를 다같이 균형 있게 주장해야 할 한국 장로교회의 일부 목회자들이나 일부 성도들이 일반 직제와 특별 직제를 상호 배타적으로 이해해, 특별 직제만을 인정해 직제 절대론에 빠지는가 하면, 일반 직제만을 주장해 직제 무용론에 빠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 직제의 삼위일체론적, 교회론적 기초와 근거

장로교회에서 모든 직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Christocracy)과 성령의 통치권(Pneumatocracy) 하에 있어야 한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주님으로서 그의 말씀(성경과 설교 등)과 그의 영(성령)을 통해 모든 직제 안에서 자신의 통치권을 행사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대한 자신의 통치권을 어느 누구에게도 양도하신 적이 결코 없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제는 기독교(그리스도론)적 근거와 기초를 가진다. 왜냐하면 그가 항상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이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제 안에서 통치하시고 현재하시고, 현존하시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바로 말씀과 성령을 통한 방법이다.

종교개혁과 장로교회 전통 속에서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이라는 원리는 항상 절대적이다. 기독교(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교회의 표

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는 곳에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와 기초를 가진다.

성령께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제 속에서 현재케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효과적이게 하시고, 성령께서 직제를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능력 있게 하신다. 우리가 심고, 물을 준 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자신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교회의 주체이시다. 그리고 직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와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직제는 교회론적 근거를 갖는다. 모든 직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모든 신자들과 교회의 모든 직원(항존직과 임시직)과 교회의 모든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대리자가 결코 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통치와 주권과 권위 하에 수단과 도구와 섬김으로 항상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이다.

####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봉사(섬김) 속에 있는 직제

교회의 모든 직제는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고, 모든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섬김과 봉사(로부름) 받은 직분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선출하는 교회나,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고 교회로부터 직분자로 선출된 사람은 그 직분이 하나님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한 직분임을 철저히 명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의 직제는 교회나 성도들에 대한 지배권이나 군림의 직분이 아니라, 봉사(로부름) 받은 종의 직분이기 때문이다.

#### 본질상 동등성, 기능상 차이성 속에 있는 직제

로마(천주)교회에서는 직제 간에 계층구조적인 서열(hierarchy)이 심각하다. 그러나 종교개혁과 장로교회에서 모든 직제는 본질상 동등성(parity)을 가지며, 기능상 차이성을 보여준다. 동

일한 성령께서 주신 각각 다른 은사와 기능에 기초한 직제는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함으로써 하나님과 교회의 각 지체들과 하나님의 나라에 봉사의 사명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 상호 균형과 상호 조화 속에 있는 직제

장로교회의 직제는 통일성 속에서의 다양성과, 다양성 속에서의 통일성을 추구해야 한다. 협의회성(collegiality; collegium)과 대표성의 원리에 입각해 구성된 치리회 속에서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직제에 절대적 힘이 주어질 경우, 장로교회는 교황이나 감독교회로 변질될 수 있고, 그 반대로 다양성만 지향될 경우, 교회가 무질서해 혼란에 빠질 수 있다.

#### 구속사적 적응성과 개방성 속에 있는 직제

장로교회는 성경적 관점에서부터 직제를 도출해야 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구속사(救贖史) 속에서 성령을 통해 각 교회에게 허락하시는 직제에 대해 항상 개방된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66년 정경(正經)이 확정된 이후, 구약의 예언자와 신약의 사도와 본질상 동등한 직제로 이해되는 직제는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 마틴 부처와 우리교단이 주장하는 교회의 세 가지 표지(말씀 선포, 두 가지 성례집례, 치리 시행)를 따를 경우, 교회의 본질과 표지를 잘 유지하기 위해 장로교회는 기본적으로 '목양(牧羊)하는' 포괄적 기능 속에 '가르치는' 기능, '다스리는' 기능, '돌보는' 기능을 항상 균형 있게 포함시키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어떤 직분을 통해 이 중요한 기능을 구현할 지에 대한 문제는 성경을 표준으로 구속사적 적응성과 개방성을 가지고 교회가 결정해야 할 것이다. 한국 장로교회는 미국 장로교회의 직제를 모델로 삼으면서도, 비(非) 장로교회로부터 또는 성경적 관점에서부터 전도사, 권사, 서리집사 같은 직제를 추가적으로 채택했다.

(다음주 계속)

-한국기독교공보 3056호2016.08.27(토) 발췌-

사순절의 묵상

# 구원의 확신 부활의 은혜

박유진 성도  
(청년2부 회장)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지신 십자가 고난을 매일 묵상하고 회개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우리의 십자가 고난보다 세상 속 어려움과 힘겨움에 더 집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이기적이고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고난 당하시고 겸손하게 낮아지신 주님을 본받아 섬김을 받는 삶이 아닌 섬기는 삶을 살아가길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나라 안팎과 세계 곳곳에서는 많은 이들이 불신과 불안과 미움으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로 인해 가장 아파하실 주님, 원컨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의 자녀 된 우리 매일의 삶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길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의 사탄의 마음들은 모두 쫓겨나고 온전히 주의 말씀과 사랑만 가득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일치의 삶으로 삶이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교회는 주님의 값진 피로 사셨다 하였습니다. 주님의 몸이라 하였습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입과 손으로, 십자가 지시는 주님의 몸을 찢고 피 흘리게 한 무지했던 자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두려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의 주님, 부디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 용서하여 주시고, 온 교회와 온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찢겨지고 상처 난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세상 삶의 고난 속에서 절망을 느끼며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우리가 아닌 매일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고등부 연합수련회를 마치고

## 바른 믿음의 계대가 이어질...



김영희 집사  
(중등부 부장)

중·고등부 연합수련회를 2월 25일(토) 세계 성막 복음센터에서 가졌습니다. 수련회에 3일씩 하던 지난해와 다르게 하루 만에 다녀오는 여정이었습니다. 더구나 교회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있어서 어찌보면 조금 무리한 계획이기도 했습니다. 이른 아침 준비하러 교회에 가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여느 해 같았으면 기쁨과 설렘으로 수련회를 준비했을텐데... 그러나, 토요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중·고등부 학생들을 격려해 주시겠다고 8시까지 집에도 돌아가시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는 장로님들과 집사님 권사님들의 배움을 받으며 출발하니 한결 힘이 되었습니다.

먼저 전 세계에서 실제 크기로 제작한 세 군데 가운데 1장소인 세계 성막 복음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다. 실제 크기로 만들어진 제단을 보며, 저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였습니다. 성막 뜰만 밟지 말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지성소까지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묵상하였습니다. 설명을 듣는 자리에서 질서를 잘 지키는 서울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을 보며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겠노라고 기도하는 귀한 체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후에는 2시간가량 공동체 활동으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은 후 조원영 목사님의 '여호와와 영광이 충만한 성막'이란 주제로 말씀을 들으며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다가오는 시험을 이삼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광야를 걸어가며 연단 받으라라는 말씀과 이어진 기도회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의 몸 된 서울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한 영으로 기도하는 중·고등부 학생들을 보면서 우

리 교사들의 마음이 한없이 울컥했습니다. 그냥 어린아이로만 느껴지던 중·고등부 학생들이 교회의 일에 아파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속히 우리 서울교회가 주님 안에서 바르게 회복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2시간 여의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단 몇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같이 모여서 저녁을 먹으며 교제하며 이런 모습이 천국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른 신앙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의 연단을 거부하지 말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의 계대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헌신하여 주신 선생님들과 물질로 도움주시신 믿음의 성도님들, 중·고등부 연합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호산나대학 졸업! 새로운 시작의 첫 걸음

호산나대학 제8회 졸업식이 2월 15일(수)본교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졸업식은 노인케어학과 8명, 사무자동학과 8명, 서비스학과 19명 총 35명이 배출되었다.

졸업식은 형식적인 의례에서 벗어나 졸업생 한 명 한 명이 주인공이 되는 시간이었다. 흥겨운 음악을 배경으로 졸업생이 한 명씩 입장 할 때마다 재학생들과 졸업생 가족들의 환호로 대강당이 가득 채워졌다. 또한 졸업생이 단상에 올라 상을 받고 지난 3년간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상영될때는 참석자 모두 눈시울이 붉어졌다. 졸업생 대표로 부모님께 드리는 감사편지를 낭독한 길현주 학생은 “부모님들이 3년 동안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학생이 아닌 사회인으로 당당히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 했다. 또한 학생회장을 역임한 홍진혁 학생은 단상에 올라 “입학할 때 부족했던 저를 3년간 교수님들께서 격려해주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좋은 곳에 취업할 수 있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호산나대학에서 보낸 시간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다.”며 졸업 소감을 밝혔다. 호산나대학 교수들은 졸업생들을 위해 깜짝 축하공연을 준비해 졸업생들은 물론 자리에 참석한 졸업생 가족들과 재학생들 모두에게 감동을 선물했다.

이동귀 부학장을 비롯한 모든 교수들은 학교를 떠나 사회로 나가는 학생들에게 “이 곳에서 경험한 것들이 사회에서 생활하는 데에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어디서든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호산나인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번 졸업식에서 35명의 졸업자 중 취업 22명, 학업연장(인턴과정) 9명 등 91%의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다. 호산나대학은 졸업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으로의 첫 발이라 여기며 이들에게 영원한 멘토가 되어 줄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시스템을 통해 안정적인 직장생활이 유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교회 사랑-

많은 사람들이 비좁은 공간에서 예배와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교회당 청결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장실 뒷정리와 식사 후 뒷정리, 물과 전기 절약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3월5일(주) 서울교회 주일에 배 설교한다. 3월7일(화) 미래한국 미디어총회 참석한다. 3월11일(토) 종교개혁 500주년 공동학술대회 섬김위원 소집한다.
  - 특남 : 9교구 서병일 성도 신기원 집사(신항법 집사 김민희 집사 장녀 가정)



## 행복한 작은 섬김

지난 1월 15일(주) 이후 8층 만나홀의 사용이 불가능해지면서 많은 성도의 점심식사를 위해 자원하여 헌신하고 있다. 다음은 1월 15일 이후 지난 주일(2월 26일)까지 식사를 섬긴 성도들 명단이다.

그동안 차봉사, 식사준비, 뒷마무리, 서빙 등으로 섬겨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현금 찬조

최죽희 박순복 김동진 이순영 서영희 박동희 유덕자 이옥수 최세정 김정제 장호림 안미경 심상필 고완순 박진주 유기순 정금희 조미영 남영주 안분선 최원자 김은순 심명숙 이순영 정경자 남태영 이영옥 김남옥 김숙자 이홍숙 이화숙 양옥자 정미자 이영자 이영주 한춘홍 주화

인 김유경 김선영 박연옥 오가연 김서윤 정혜순 유명석 김명숙 김명심 김혜란 임송자 정미자 나미경 김미성 김정희 권택숙 정정희 유운순 최미경 최진이 최근자 임분도 박보경 최영란 선순례 이상섭

### -음식 찬조

이상섭 최현인 정미연 김복희 박정자 김미영 김은순 황재연 이영희 이영희1 장호림 허 숙 송미령 곽대수 최영경 김명화 곽숙 최금숙 이관모 최죽희 박복순 서희숙 김종자 정미자 박길이 최세정 조영자 최종금 송미희 유명석 김정제 안선희 이순영 김찬진 김애리 최종희 박길자 이정현 김수복 황정임 김찬진 김양숙 이정현 나미경 김수복 김은순 박길자 김애리 정미연 최종희 김찬진 허 숙 김춘호 홍승전 김민아 오선혜 (다음주 계속)

##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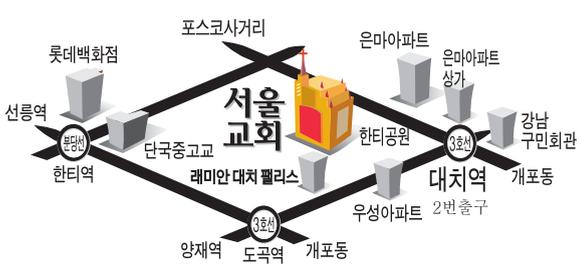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사순절을 통해 우리 모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2.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온전히 회복 될 수 있도록
3.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II, III, IV 층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웨스트민스터 홀
	짧은이예배	오후 2시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II, III 층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본 당 II 층	

### ■ 교회 오시는 길



### ■ 서울교회QR코드

